

22. 욱기

욕기는 주인공 욱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 의인의 고통과 하느님의 침묵이 주제입니다. 욱은 우츠(에돔의 시적 별칭) 땅에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 욱에게 하느님께서서는 자녀복과 재산복을 주셨고, 욱은 평온한 삶을 누리면서도 하느님의 눈에 벗어나는 일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느님께 내기를 걸어 욱은 순식간에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첫 번째 공격으로 욱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지만 비탄 속에서도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라며 주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공격으로 욱은 온 몸에 고약한 부스럼이 돌아나 잣더미 속에 앉아 질그릇으로 제 몸을 긁지만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라며 역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셋이 찾아와서 욱이 불행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몰아세우자 욱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급기야 하느님께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어 세 친구보다 젊은 엘리후와의 담론이 이어지고 드디어 폭풍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각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고 하시며 당신이 이 세상의 주재자이심을 알리시고 욱에게 세상 근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자 욱은 하느님의 권능을 무조건 인정하며 그분께 예전의 깊은 신뢰를 다시 보여 드립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서는 상선별약의 원리에 집착하여 욱을 몰아부쳤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욱을 옳은 사람으로 두둔하십니다. 그리고 욱의 중재 기도로 삶의 모순된 현실 앞에서 욱과 달리 정직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용서를 받고 욱은 예전과 같은 수의 자녀와 두 배의 재산과 수명을 누리게 됩니다.

욕기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인간은 하느님을 사심없이 공경해야하고, 자신의 이해와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 앞에서도 하느님 안에서만 그 상황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 세상 온갖 고통과 부조리에도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공경 받으셔야 할 분인데,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받은 것이고 그분과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무한히 뛰어넘는 엄청난 신비이기 때문입니다.